

탈북인을 통해 본 북한의 시간생활 실태 및 남한과의 차이점 분석*

Analysis of Time Life in North Korea with the perspectives of Defectors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영
교수 이기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은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김대년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영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최연실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Prof. : Lee, Ki Young

Prof. : Rhee, Kee Cho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l Univ.

Prof. : Rhee, Eun 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 : Yi, Soon Hyung

Dept. of Architecture, Seowon Univ.

Assoc. Prof. : Kim, Dae Nyun

Dept. of Food & Nutrition, Soonchunhyang Univ.

Prof. : Park, Young Sook

Dept. of Family Welfares, Sangmyung Univ.

Assist. Prof. : Choi, Youn Shil

*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짐.

〈목 차〉

I. 서론	IV. 남북한 시간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
II. 연구방법	V. 결어
III. 시간생활의 실태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time structure and time use pattern of North Korean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time use patter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To carry out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ith ten people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after 1990 and empirical survey with 158 subject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time life of North Korean are uniform time use pattern in tightly scheduled daily life and shortage of disposable time and constraint of free time due to job related labor, extra job activities including learning, meeting and evaluation, and labor mobilization. Women are faced with heavy burden of doing job and housework in the continuing patriarchal way of thinking and in the circumstances of poor housing environment

In North, Leisure time is constraint and leisure facilities are poor and the concept of leisure is totally different as that of South. North Korean think leisure as connecting with work and education and as public sphere, not private sphere. In this context leisure is considered as means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ommunist society.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ime life through defectors are as follows. In South, there are plenty of leisure time and man can control his own time. Man spend his free time for various activities, especially for cultural activities such as sports, recreation, eating out with families and spend time till late in the outdoors.

This study revealed differences in many aspects of time lif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These results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s for the overcome of differences of cultural life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and accomplishment of the real integration of two societies.

I. 서론

최근 6.15 남북한 공동성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사회적으로 한층 고조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여러 창구를 통한 남북한간의 후속적인 회담 등은 통일이 마치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남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객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동안 통일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왔다. 하지만 통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의 통합을 뜻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조형, 1997).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일상적인 화두로 자리잡게 된 오늘날은 더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정치 경제 중심의 논의로부터 벗어나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생활문화에 대한 통합을 논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양식이나 의식에 걸쳐 남북한간에 그동안 이질화가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실태를 통한 남북한간의 생활문화의 이질화에 대한 이해는 통합에서 야기되는 혼란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춘 외 7인(1997, 1998, 1999)은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의 의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문화에 초점을 두고 생활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족생활, 아동생활, 소비생활, 시간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시간생활에 초점을 두어 시간생활의 실태 및 이질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생활시간의 배분 및 사용과 관련된 시간생활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한 각 개인의 생활시간이 사회체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사회의 통제구조를 반영하기도 한다. 북한의 폐쇄된 사회주의체제는 북한 주민들의 시간생활양식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시간생활에 대한 고찰은 그들의 생활문화와 남북한간의 생활문화의 이질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생활의 차이점 이해는 생활 전반의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문헌이 여러 편 나와 있지만 사회·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또는 실생활과 밀착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단편적이거나 다소 왜곡된 내용에 치우쳤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인 시간생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간생활이란 하루의 생활시간을 생리적 활동, 수입노동, 가사노동, 여가활동

등 생활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시간을 배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생활을 다룸에 있어 시간생활의 실태와 남북한 시간생활의 차이점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활시간의 실태는 생활시간구조와 생활시간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분석하되, 생활시간 구조는 생리적 시간, 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나누어 영역별 생활시간양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간의 시간생활의 차이는 생각시간구조와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 연구를 위해 실시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것이다.

1. 면접조사

피면접자는 북한생활을 체험했던 국내 거주 탈북인들이다. 자료의 참신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피면접자는 1990년대 이후 탈북한 사람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생활문화에 관련된 것이므로 주로 여성 응답자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은 1996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피면접자 10명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대상자 역시 북한생활을 체험했던 국내 거주 탈북인들로 1990년 이후 탈북한 사람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어 선정하였다. 시간생활을 묻는 문항은 하루일과 8개 문항, 집안일 4개 문항, 여가활동 3개 문항, 일과에 있어서 남한과의 차이점을 묻는 1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에 실시하였으며 국가기관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우편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총 200명의 탈북자에게 질문지를 발송하였으며 회수된 163명의 질문지 중 부실

〈표 1〉 피면집자의 일반적 특성

부호	성별	연령	탈북시기	탈북전 직업	교육수준	탈북전 거주지
A	여	36	1997. 2	식료공장 공원	중졸	함경북도 회령
B	여	34	1997. 2	식료공장 공원	중기사과정졸	함경북도 회령
C	여	50	1995.12	간부물자공급소 소장	상업전문대학졸	함경북도 온성
D	여	56	1995. 3	북송채일교포/미용사	중졸	평안북도 신의주
E	남	40	1995. 2	농업연구사	농업대학졸	양강도 김정숙군
F	여	36	1994. 7	재단사	고졸	자강도 만포시
G	남	36	1994. 5	수리관개/별목공	관개수리대학졸	함경남도 함흥
H	여	48	1994. 4	정성가내반 노동자	고졸	함경남도 함흥
I	여	25	1994. 4	유치원 교사	고졸	함경남도 함흥
J	남	55	1986.11	연구원	경제학 박사	평양

기재된 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8부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목적에 맞추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인 통계치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Ⅲ. 시간생활의 실태

1. 생활시간구조

1) 생리적 시간

우선 기상시각을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19.2%가 5시 이전에 기상하며, 60%가 6시 이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이른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평균 기상시각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듯이 남자들은 평균 6시 12분에 일어나는데 반해 여자들은 5시 29분에 일어나 남자들보다 40분 이상 빠르다. 주부들은 열악한 취사환경 하에서 식사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므로 새벽 5시를 전후한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H씨는 “일어나

는 시간은 연료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주부들은 일어난 후 탄불을 조사해서 바람이 올라가게 하고 가마에 물을 올려 놓고 끓으면 밥을 하는데, 옥수수 알갱이가 딱딱하여 잘 안 익으므로 아침밥 짓는데 보통 2시간이 걸린다. 밥 짓는 동안에 다른 집안 일, 즉 청소나 빨래를 한다. 아침에 끓인 옥수수밥을 점심까지 먹는데 점심때는 데워서 먹는다”고 식사준비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

취침시각을 보면, 밤 10시 이전에 자는 사람이 28.2%이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드는 사람이 42.3%로 응답자의 70.5%가 11시까지의 잠자리에 들며 평균 취침시각은 10시 56분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의 취침시각은 10시 40분으로 남자들보다 20분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들은 아침에 많은 집안일을 해야 하므로 남자들보다 빨리 잠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은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보통인데, H씨는 “퇴근 후 저녁밥을 하여 9시 정도의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고 저녁식사 후 설거지, 아침식사준비, 애들 옷 준비나 빨래 등의 일을 하고 11시나 12시가 되어 취침하여 수면시간이 5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5〉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수면시간과 식사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도(%)	항 목	구 분	빈도(%)
연령	29세 이하	30 (22.6)	탈북 전 거주지	도 시	114 (75.5)
	30~39 세	55 (41.4)		농 촌	37 (24.5)
	40~49 세	26 (19.5)	교 육 수 준	고등중학교 중등반 졸	6 (4.5)
	50세 이상	22 (16.5)		고등중학교 고등반 졸	23 (17.3)
평균: 38.0 표준편차: .94		교원대학/고등전문학교 졸		29 (21.8)	
		대학(종합,단과,사범) 졸		75 (56.4)	
성별	남	107(76.4)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	99원 이하	28 (22.0)
	여	33 (23.6)		100~199원	39 (30.7)
탈북 전 직업	노동계층	30 (23.3)		200~299원	27 (21.3)
	사무원 등 근로인텔리, 전문직	40 (31.0)		300~499원	11 (8.7)
	학생유학생	8 (6.2)		500원 이상	22 (17.3)
	개인농어민, 자영업,운전기사	7 (5.4)	평균: 521.0 표준편차: 107.86		
	군인, 당간부, 외화벌이꾼	25 (19.4)	가입한 조직	노동 당	67 (44.7)
	주부 및 무직	8 (6.2)		사 로 청	56 (37.3)
기타	7 (8.5)	직업 총동맹		15 (10.0)	
		농업근로자 동맹		2 (1.3)	
탈북 연도	94년 이전	74 (48.4)	여성 동맹	10 (6.7)	
	95, 96 년	38 (24.8)	동반가족 여부	있 다	63 (52.9)
	97 년	41 (26.8)		없 다	56 (47.1)
탈북 전 가족원 수	2명 이하	17 (11.6)	평균:4.19 표준편차: .13		
	3~4 명	72 (49.3)	탈북 전 가족유형	핵가족, 부부가족	105 (72.4)
	5명 이상	57 (39.0)		직계가족, 확대가족	30 (20.7)
				단 독 가 족	7 (4.8)

〈표 3〉 기상시각 및 취침시각의 분포

(n=158)

기상시각	빈도 (%)	취침시각	빈도 (%)
5:00 이전	30 (19.2)	21:00 - 22:00	44 (28.2)
5:01 - 6:00	65 (41.7)	22:01 - 23:00	66 (42.3)
6:01 - 7:00	52 (34.0)	23:01 - 24:00	34 (21.8)
7:01 이후	8 (5.1)	24:01 이후	12 (7.7)

시간을 보여준다. 우선 수면시간을 보면 여자는 평균 6시간 50분, 남자는 7시간 10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0분 정도 수면시간이 짧다. 연령에 따라서는 고령자일수록 수면시간이 짧으며, 거주지별로 보면 농촌거주자의 수면시간이 도시보다 다소 짧게 나타

〈표 4〉 성별 평균 기상시각 및 취침시각

(사: 분)

구 분	표본수	기상시각	취침시각
남 자	107	06:12	23:02
여 자	33	05:29	22:39
전 체	157	06:01	22:55

났다. 수면시간을 남편과 취업주부 모두 7시간 13분으로 나타난 남한 근로자 부부의 수면시간(이기영 외 3인, 1996)과 비교하면 남자는 유사한 데 반해 여자는 북한의 경우가 20분 정도 짧다.

북한 주민의 식사시간을 보면 하루에 55분으로 아

〈표 5〉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수면시간과 식사시간
(시간: 분)

구 분		표본수	수면시간	식사시간
성 별	남 자	107	7:10	0:56
	여 자	33	6:50	0:58
연 령	- 25	12	7:28	0:46
	26 - 30	27	7:36	0:39
	31 - 38	40	7:06	0:48
	39 - 48	27	6:51	1:29
	49 -	27	6:33	1:02
거주지	도 시	114	7:09	0:59
	농 촌	37	6:58	0:46
전 체		157	7:06	0:55

주 짧으며 한끼 식사에 20분 이하의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식사시간에 별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은 집단이 젊은 집단보다 식사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농촌거주자의 식사시간이 짧아서 한끼에 15분 정도면 식사를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근로자의 식사시간은 남편이 1시간 39분, 취업주부가 1시간 21분(이기영 외 3인, 1996)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식사시간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인 동시에 가족원이 함께 공유하는 여가의 성격도 갖는다. 북한 주민의 식사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은 북한의 가족들이 각자의 바쁜 일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고 식사가 배고픔을 없애는 생리적 욕구충족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의 평균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을 합치면 8시간 1분으로 남한의 8시간 52분(남편 기준)에 비해 매우 짧다고 하겠다.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은 직장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시간배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시간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앞의 일과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은 직장 근무시간 외에 여러 종류의 학습이나 회의 등의 참가로 인해 장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생리적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

2) 노동시간

(1) 직장노동시간

북한의 직장인들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학습하며, 8시간 휴식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서동익, 1995). 그러나 각종 학습이 직장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사무원의 일과는 직장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근무가 시작하는 시각은 오전 8시 전후로 성별, 학력, 거주지 등 집단에 따라 별 차이가 없다. 직장종류 시각은 평균 오후 6시이며 이 시각 역시 성별, 학력, 거주지 등에 따른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편 근무시간을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9시간 54분이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10시간, 여자가 9시간 55분으로 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북한 주민의 근무시간을 남편이 9시간 28분, 취업주부가 7시간 30분인 남한 근로자 부부의 근무시간(이기영 외 3인, 1996)과 비교하면 남자는 26분, 여자는 2시간 25분이나 길다. 북한 주민의 근무시간은 학력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근무시간이 10시간 15분으로 비교적 길게 나타났다. 고등전문학교 졸업자는 9시간 29분으로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도시와 농촌간에도 근무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30조에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함을 노동법 제16조에서 밝히고 있으나 여자들의 노동시간도 남자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법규정이 사문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실제로 북한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독보회, 학습회, 강연회 등 여러 작업 외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작업총화와 생활총화 등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독보를 통해 당과 국가가 바라는 것이나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근무가 끝난 후에는 요일별로 생

활총화나 작업총화에 참석한다. 작업총화는 작업반 별로 갖는데 그날 일을 평가 반성한다. 생활총화의 내용은 1주일을 주기로 매일 다른데 정치학 학습이나 강연회, 혁명역사강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C씨에 의하면 월요일에는 조직별 생활총화, 화요일은 정치학 학습, 수요일은 수요강연회, 목요일은 혁명역사 학습, 금요일은 금요노동, 토요일은 토요일학습이나 토요일강연회, 일요일은 노력동원 등 정규시간외 작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작업 외 활동이나 회의 참여 정도는 직장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지급이 높을수록 회의 참여시간이 길어져 퇴근시간은 더 늦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자공급소 소장이라는 간부급 직급을 가졌던 C씨는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직장에만 몰입하였다고 한다. “저는 항상 밤 12시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수시로 회의를 하고 강의에 참여해야 하고 해서 정해진 저녁 퇴근시간이 없습니다” 또 1970년대 후반부터는 당정간부 및 사무원들은 매주 1회씩 의무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주강현, 1994), 특히 금요일에 금요노동이라고 하여 육체노동을 하고 있다.

통근시간은 대체로 짧은 편으로 <표 6>에서 보듯이 통근에 1시간 이상 걸리는 집단은 없었다. 통근시간은 평균 41분이었으며 성별간에 차이가 없었다. 학력별로는 고등중학교 중등반과 고등반 졸업자가

학력이 높은 집단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거주지별로는 도시가 농촌보다 14분 정도 길게 나타났는데, 직장과 가정이 분리되어 있는 도시생활의 속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통근시간은 남한 주민보다 훨씬 짧은데, 남자는 1시간 43분, 취업여성은 1시간 24분 정도 걸리는 남한 근로자의 통근시간(이기영 외 3인, 1996)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통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도보가 가장 많아 응답자의 49.4%가 걸어서 통근하였으며, 자전거·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22.2%로 그 다음이었다. 북한도 그 비율이 아주 큰 것은 아니나,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자전거 문화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버스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7.7%, 전철이나 전차가 10.8%, 지하철은 8.3%이었으며 승용차는 4.4%에 불과하였다. 통근시간이 1시간 이하이며 또한 교통수단이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인 것을 고려하면 집과 근무처까지의 거리가 대체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력동원

북한사회는 정규적인 노동시간외에도 노력동원시간이 노동시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사회에서의 노력동원이란 구체적으로 직장근무시간, 협동농장 작업시간 외에 행해지는 작업시간을 말하는데 노

<표 6> 성별, 학력별, 거주지별 근무 시간 및 통근 시간

(시간: 분)

근무 시간				통근 시간			
		표본수	시 간			표본수	시 간
전 체		134	9:54	전 체		133	0:41
성별	남자	93	10:00	성별	남자	94	0:42
	여자	27	9:55		여자	26	0:41
학력	고등중학교 중등반	3	9:50	학력	고등중학교 중등반	3	0:24
	고등중학교 고등반	19	9:42		고등중학교 고등반	19	0:31
	교원대학· 고등전문학교	25	9:29		교원대학· 고등전문학교	25	0:42
	대학이상	66	10:15		대학이상	66	0:44
거주지	도시	99	9:53	거주지	도시	99	0:44
	농촌	31	9:58		농촌	30	0:31

동자·사무원·군인·학생 등의 노동력을 무보수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농촌지원과 도시미화작업을 들 수 있는데 사무원의 경우 연간 의무적으로 40~50일 동안 이에 참여해야 하며 고등중학생은 10주간, 대학생은 12주간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정혜문, 1988).

북한주민의 노력동원 횟수 및 1회 동원시 작업시간에 대한 응답은 <표 7>과 같다. 우선 월 평균 노력동원 횟수를 보면 3.7회로 한 달에 3~4번 정도 동원됨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 보면 여자(4.7회)가 남자(3.5회)보다 한달에 1회 이상 더 많이 동원되며 농촌거주자(4.2회)가 도시거주자(3.6회)보다 많이 동원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많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동원되었을 때 평균 소비하는 시간은 전체 평균 6시간 11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낸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6시간 26분)가 여자(5시간 31분)보다 긴 시간을 소비하며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노력동원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월 평균 동원횟수와 1회 동원시간을 고려하면 북한주민들은 한 달에 평균 22시간 36분 정도를 노력 동원에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간을 직장노동시간과 합하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 42분으로 북한주민들이 상당한 양의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은 노력동원 등 바깥일에 자주 동원되므로 집에서 쉴 수

있는 일요일은 한 달에 한 두번 정도에 불과하다.

노력 동원 시에 하는 일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농촌 지원으로 50% 이상의 응답자가 농촌지원을 나간 것으로 보고하였다. 농촌지원은 특히 봄철 모내기 때와 가을 추수할 때 자주 동원된다. 다음으로 많이 동원되는 활동은 건설, 보수 및 청소 등의 도시미화작업으로 34.8%의 응답자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타 소수 응답으로는 비료 생산, 식수 사업, 직장일, 군사 훈련 등이 있었다.

3) 가사노동시간

(1)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분담

북한 주민 전체의 가사노동 시간, 남녀간 가사노동 분담실태 및 남성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과 행위자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표 8>과 같다. 우선 전체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였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활동은 청소, 빨감준비로 39분이었고 다음은 음식준비로 31분이었다. 빨래·바느질, 자녀 돌보기는 25분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설거지로 12분이었다.

성별 가사노동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서 여자가 3시간 47분, 남자는 1시간 26분을 집안일 하는데 소비하였다. 시간 량 뿐 아니라 주로 하는 집안 일에서도 남녀간에 차이를 보여 여자들은 음식준비와 빨래에 각각 1시간 정도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표 7> 월 평균 노력동원횟수 및 노력동원시간

(회/시간: 분)

구 분	표 분 수	월평균노동동원횟수	1회노력동원시간
성 별	남 자	86	3.5
	여 자	22	4.7
거주지	도 시	85	3.6
	농 촌	30	4.2
학 력	고등중학교 중등반	4	4.8
	고등중학교 고등반	16	4.8
	교원대학·고등전문학교	23	3.4
	대학이상	57	3.5
전 체	121	3.7	6:26
			5:31
			6:11
			6:02
			7:00
			6:34
			6:52
			5:43
			6:11

〈표 8〉 가사노동시간

시간: 분(표본수)

구 분	전체 (124)	여자 (27)	남자 (83)	남자 중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
음식준비	0:31	1:04	0:21	37.4	0.57
설거지	0:12	0:30	0:06	28.7	0.21
빨래, 바느질	0:24	1:01	0:13	22.4	1.00
청소, 땀감준비	0:39	0:40	0:39	46.0	1.26
자녀돌보기	0:26	0:23	0:23	34.1	1.07
전체 가사노동	2:00	3:47	1:26	67.5	2.07

다음은 청소·땀감준비와 설거지에 각각 30분 내외의 시간을 소비하였고, 자녀 돌보기에는 23분 정도로 가장 적게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자들은 청소·땀감준비(39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땀감준비가 주로 남성들이 담당하는 가사노동 영역임을 보여주었으며, 자녀 돌보기와 음식준비에 20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였고 빨래와 설거지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

한편 남성들 중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가사노동에는 67%의 남성들이 참여하였고 참여자는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를 가사노동에 소비하였다. 영역별로 보면 남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청소·땀감준비로 참여율이 46%이고 참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1시간 26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음식준비에 37.4%의 남성이, 자녀 돌보기에는 34.1%의 남성이 참여하였고 설거지와 빨래에는 각각 28.7%, 22.4%로 비교적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량은 남한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인 17분과 휴일의 1시간 46분(이기영 외 3인, 1996)에 비해서 많은 편이며, 면접조사에서 북한 남성들은 남존여비사상에 익숙해 있어 집안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의 진술과 상당

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일지표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자기기입식 조사로 인해 답변이 과장된 데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자들이 도와준 집안 일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땀감 준비나 물기는 일 등 특정 집안 일에만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멍탄 찍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각각 62.0%, 58.9%라는 과반수가 넘는 남자들이 도와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 터밭 가꾸는 일, 물기는 일의 순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집안 일을 도와주는 남자는 5.7%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면접조사에서 거의 집안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대부분의 응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남편들은 남존여비사상이 강해 집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 남편이 도와주는 일을 쉬는 날에 구멍탄을 찍거나 물을 길어다 주는 정도이다. 남편이 부인 일을 도와주면 남자답지 못하다는 평을 듣는다.” (G씨)

“가족이 외출할 때 부인이 애기를 업고 손잡고 머리에 짐을 이고 가고 남편은 단지 옆구리에 간단한 짐을 끼고 갈 뿐이다. 여자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남편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H씨)

1) 남한 근로자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기영 외, 1996)은 남편이 평일에 17분, 휴일에 1시간 46분이고, 여성의 경우 취업주부는 평일이 3시간 20분, 휴일이 5시간 23분, 전업주부는 평일이 7시간 34분, 휴일이 4시간 47분이다.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취업유무, 평일과 휴일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본 논문의 자료와 단순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으나 북한의 조사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은 각각 남한 남편의 휴일 가사노동시간과 취업주부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에 유사하다고 하겠다. 한편 남한 전업주부는 북한 여성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을 가사노동시간에 소비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 남자들의 집안일 도움

(빈도: %)

구 분	빈 도
구멍탄 찍는 일	98(62.0)
나무 패는 일	93(58.9)
청 소	71(44.9)
터 밭 농 사	62(39.2)
물걸는 것 도와줌	36(22.8)
기 타 집 안 일	9(5.7)
전혀 도와주지 않음	13(8.2)

“남자들은 저녁에 들어오면 근본 일하는 게 없어요. 집에서 가정 일도 많고...없어요. 밥도 여기하곤 달리 밥상 다 들어다 바쳐야되고... 제가 집에서 일할 때 일체 가정일은 남자가 안봐 주어요. 연탄 같은 것도 여기서처럼 연탄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가루탄을 갖다 준다구요. 가루탄을 갖다 주면 여자들이 찍어야 해요.”(F씨)

따라서 실제로 남자들이 하는 집안 일은 여자들이 하기 힘든 몇 가지의 특정 집안 일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안 일은 일상적인 성격의 일이 아니고 휴일에 몰아서 가끔 도와주는 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아 남자들의 가사분담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사노동 특성 및 가사노동 환경

남한과 비교해 볼 때 가사노동영역 중 빨래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북한의 열악한 연료 사정에 기인한다. 취사연료로는 석탄이나 구멍탄, 나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응답자중 66.2%가 석탄이나 구멍탄을, 25.5%가 나무를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9.9%가 석유콘로를 보유한 것으로 응답하여 석유콘로가 중요한 취사도구임을 알 수 있다. 평양에서는 조리시 주로 석유콘로를 사용하거나 구멍탄을 쓰는데 반해 지방도시에서는 갈탄을 사용하고 농촌에서는 자체 연료를 해결하도록 되어 나무, 벚짚, 강냉이짚을 태워 연료로 사용한다(B씨, E씨). 갈탄을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상층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갈탄 나르는 것이 가장 큰 노역이 된다. B씨는 “보통 1끼에 1양동이 분량의 갈탄

이 필요하므로 한번에 2양동이씩 들고 올라가고 또 타고 난 재를 다시 양동이에 담아 내려와야 하는데, 이것이 몹시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난방연료로도 석탄이나 구멍탄(63.1%), 나무(21.7%)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가장 편리한 난방방식인 중앙난방을 사용한 경우는 10.8%에 불과하였으며 그 밖에 갈탄이나 전기를 사용한 경우도 소수 있었다.

물은 응답자의 2/3 정도가 냉수가 나오는 수도에 의해 공급을 받았고, 18.1%는 우물이나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 왔으며, 12.8%만이 냉온수가 나오는 수도를 이용하였다. 수도가 있기는 해도 지방도시의 아파트에는 시간제로 공급이 되고 수압이 낮아 3층까지만 물이 나오므로 그 이상되는 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아래층에 내려와서 물을 길어야 한다(B씨). 농촌에는 수도가 안들어오는 집이 많아 우물이나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이 일 역시 여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E씨).

주부는 주로 식사준비, 빨래하기, 청소하기 등의 집안 일을 전담하는데, 밥은 무쇠솥을 2~3개 걸어 놓고 한 솥에서는 계속 물을 끓이고 다른 솥에서 이물로 밥을 하거나 국을 끓인다(B씨). 밥은 강냉이밥으로 알갱이가 딱딱하여 잘 안 익어 두 번 정도 끓여야 하므로 밥짓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H씨).

빨래나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데 가루탄이 많아 잘 더러워지기 때문이다(J씨). 빨래는 밥짓는 동안이나 저녁식사 후에 매일 조금씩 하고 또 큰 빨래는 주 1회 몰아서 하는데 직장여성들은 토요일 밤 12시에서 3시까지 빨래를 하기도 한다(H씨). 빨래할 때 비누의 질도 나쁘고 구하기도 힘들어 양젓물이나 옥수수 배아 쥘 것을 비누대용으로 사용한다(J씨).

열악한 연료사정이나 수도사정 못지 않게 가정기도 아주 빈약한 수준이다. 재봉틀의 보유율은 67.9%로 높은 편인데, 이는 신부가 혼수감으로 해오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식된다. 가족옷을 손수 만들 수 있어서 뿐 아니라 부업을 할 수 있어 가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F씨). 최근에는 냉장고가 인기인데, 보유율은 37.8%이다. 냉장고를 가지고 있으면 얼음과자를 만들어 팔아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B씨). 요즈음 생활이 곤궁해지면서 주부들이 직장을 기피하고 집에서 부업을하기를 원하고 남편도

부인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자녀 돌보기에 소비한 시간은 26분으로 적게 나타났다.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는 것이 북한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또 자녀가 학교를 간 후에는 자녀교육은 전적으로 학교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는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자녀양육은 어머니가 주로 하고 직장이 없는 주부는 자녀를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

계급과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구현할 것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와 더불어 가사로부터의 해방을 주요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여자들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전담함으로써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건의 열악함을 고려할 때 북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집안 일의 부담은 시간양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와 일의 내용의 낙후성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남성들은 여성을 부엌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실제로 가사를 분담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부장제를 주체사상과 결합하여 통치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사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4) 여가시간

(1) 여가활동 참여 및 여가교육

북한주민들의 기본일과는 노동과 사상학습으로 짜여 있으므로 여가시간을 가질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다. 또 여가시간이 주어져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즉 북한에는 여가에 대한 개념이 없고 여가문

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는 여가는 있으나 그 개념이 남한과 전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즉 북한에서는 여가를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강조하여 생산력 제고와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위한 하나의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한다고도 볼 수 있다(김문겸, 1996).

그러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표 10>에서 보듯이 여가시간이 하루 약 4시간 정도로 시간 양에 있어서는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TV시청이 하루 2시간 정도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데 응답자의 TV 보유율이 79.1%로 나타남으로써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밖에 가족과의 대화에 1시간을, 신문·책 읽기에 50분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으나 전체 여가시간에 있어 남자가 조금 길며, 영역별로는 텔레비전 시청시간에 있어서는 여자가 다소 긴 반면, 신문·책 읽기와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남자가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면접조사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을 택한 것과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여가시간을 응답하게 한 것으로 인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생각된다.²⁾

<표 10> 성별 여가시간

(시간: 분 (표본수))

구 분	전 체 (127)	남 자 (98)	여 자 (29)
신문·책읽기	0.51	0.52	0.36
텔레비전 시청	2.01	1.59	2.05
가족과의 대화	0.59	1.02	0.49
전체여가시간	3.52	3.55	3.30

한편 여가활동 영역별 빈도를 통해 여가활동 참여의 전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는데, 활동영역별, 성별 여가활동의 빈도를 보면 <표 11>과 같이 TV시청은

2) 본 연구 대상자인 탈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의 TV보유율보다 훨씬 높은 보유율을 보였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TV보유율이 평균 10-20%로 낮다.

3) 남한 근로자 부부의 여가시간은 남편이 평일에 2시간 34분, 휴일에 8시간 36분이며, 여자의 경우 취업주부는 평일이 2시간, 휴일이 5시간 57분이고 전업주부는 평일이 4시간 54분, 휴일이 7시간 16분이다. 따라서 여가시간은 취업유무, 평일과 휴일, 성별 등을 대비해서 비교해야만 정확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11〉 활동영역별, 성별 여가활동 빈도

구 분		거의 매일	이틀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거의 하지않았다
텔레비전 보 기	전 체	62.8	15.9	15.9	2.8	0.0	2.8
	남(100)	65.5	16.0	14.0	3.0	0.0	2.0
	여(31)	64.5	6.5	22.6	0.0	0.0	6.5
독서하기	전 체	37.4	12.2	22.8	13.0	3.3	11.4
	남(87)	37.9	14.9	23.0	11.5	3.4	9.2
	여(22)	22.7	4.5	13.6	27.3	4.5	27.3
운동·산책하기	전 체	26.2	4.7	15.9	12.1	4.7	36.4
	남(75)	32.0	6.7	17.3	10.7	5.3	28.0
	여(19)	10.5	0.0	5.3	5.3	5.3	73.7
친구·친척 만나기	전 체	22.4	7.2	26.4	20.0	14.4	9.6
	남(89)	24.7	10.1	24.7	21.3	13.5	5.6
	여(24)	16.7	0.0	16.7	25.0	20.8	20.8
가족과 식당에서 음식 사먹기	전 체	2.8	1.8	6.4	25.7	15.6	47.7
	남(80)	3.8	2.5	8.8	26.3	20.0	38.8
	여(17)	0.0	0.0	0.0	17.6	0.0	82.4
영화·서커스 보 기	전 체	1.8	0.0	7.3	32.1	21.1	37.6
	남(78)	2.6	0.0	6.4	34.6	24.4	32.1
	여(19)	0.0	0.0	10.5	15.8	15.8	57.9
장기·바둑 ·주패놀이	전 체	14.0	8.5	34.9	23.3	8.5	10.9
	남(95)	15.8	9.5	36.8	26.3	6.3	5.3
	여(19)	0.0	0.0	15.8	21.1	15.8	47.4

거의 매일, 그리고 독서하기는 거의 매일 또는 1주일에 한 두번 정도의 빈도로 행해진다. 운동이나 산책은 응답자간에 큰 차이를 보여 매일 하는 사람(26.2%)이 있는 반면에 거의 하지 않는 사람도 36.4%나 되었다. 친구·친척 만나기는 비교적 자주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매일 만나는 경우(22.4%), 1주일에 한 두번(26.4%), 1달에 한 두번 만나는 경우(20.0%)가 비슷한 빈도이다. 장기·바둑·주패놀이도 1주일에 한 두번(34.9%), 1달에 한 두번(23.3%)이 많아 이들 놀이가 북한에서 가장 흔한 오락임을 보여준다. 이밖에 영화·서커스 관람은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37.6%인 반면 한달에 한 두 번 이상 보는 사람도 41.2% 정도나 되었다. 이는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여가 활동 중의 하나가 영화 감상으로 각 공장, 기업소나 협동농장 등에서 월 1~2회 의무적으로 상영하고 있다(김문경, 1996)는 것을

뒷받침해준다고 하겠다. 한편 가족과의 외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47.7%로 빈도가 아주 낮았다. 이상에서 수동적인 여가활동인 텔레비전 시청과 독서만이 비교적 자주 행해지고 적극적인 취미활동이라고 보기는 힘든 친구·친척 만나기, 장기·바둑·주패놀이도 한 달에 한 두번 행해지는 것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가 내용이 수동적이고 정적이며 소일형 중심이라고 하겠다.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빈도를 보면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여가를 더 많이 즐기고 있다. 텔레비전 보기에서는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그 밖의 여가 활동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동·산책하기, 식당에서 음식 사먹기, 장기·바둑·주패놀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러한 여가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여성이 각각 73.7%, 82.4%, 47.4%나 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여가가 남성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씨에 의하면 “남자들은 가끔 패저리를 만들어 집, 마을, 공원 등에 모여서 놀기도 한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회공공시설은 거의 없으며, 협동식당이 한 읍에 서너개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 술 먹고 논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여가활동을 빈도에 따라 정리해보면 <표 12>와 같다. 북한 주민의 여가 문제는 시간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용의 단조로움과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들이 사회적 노동 외에 가사노동까지 수행하여 노동의 부담이 크므로 여가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미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2.5%로 극히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 즉 개인보다는 조직을 중시하고 여가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취미생활은 인정하지 않는 집합주의적인 성향이 개인의 사고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주민의 모든 생활이 집단

<표 12> 여가활동 참여도의 경향

여가빈도	여가활동영역
매일 하는 활동	TV 시청, 신문 읽기, 가족과 대화하기
일주일에 한 두번 이상 하는 활동	독서하기
한 달에 한 두번 이상 하는 활동	운동·산책하기, 친구·친척 만나기, 장기·바둑·주패놀이
일년에 한 두번 정도 하는 활동	가족과 식당에서 음식 사먹기, 영화·서커스 보기

북한 주민들이 여가시간에 원하는 활동을 보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나 이웃과 놀기(34.8%), 낮잠이나 휴식(20.3%)의 순이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희망한 사람은 13.9%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차이가 있어 남자는 친구와 놀기(48.4%)를 바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낮잠과 휴식, 가족과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반면, 여자들은 낮잠과 휴식을 원하는 비율(30.3%)이 가장 높았고 친구와 놀기, 가족과 보내기,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응답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여성

화되어 있으며 모든 사회성원은 집단적 문화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회의 가치가 개인의 여가의식을 결정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쉬는 일요일에 하는 일

북한 주민은 노력동원 등으로 일요일에도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만 쉴 수 있다. 집에서 쉬는 일요일에 북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여가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노력동원 등 바깥일에 동원되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일요일은 평균 2.13회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도 차이가 없이 거의 모든 집단이 한달에 2회 전후로 일요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는 일요일에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집안 일(37.0%)이었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평일 노동시간이 길고 노력동원시간도 많으며 여자들도 취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주로 밀린 집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이 하는 활동은 연료를 준비하는 활동으로 연료(13.3%)와 나무패기(8.9%)를 합하면 22.2%

<표 13> 여가시간에 원하는 활동

구 분	활동 (%)		
	전체	여자	남자
친구나 이웃과 놀기	34.8	15.2	48.4
낮잠·휴식	20.3	30.3	17.9
가족과 함께 보내기	13.9	15.2	14.7
특별히 하고 싶은 것 없음	8.9	15.2	9.5
취미생활	2.5	0.0	4.2
집안일	1.9	0.0	3.2
돈 벌이	1.3	0.0	2.1

를 차지하여 북한 주민의 경우 연료를 준비하는 것이 큰 일임을 알 수 있다. 연료 준비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친구를 만나는 것(13.9%)과 친구를 만나서 술 마시는 것(8.6%)이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의 비율도 10.2%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휴일에 학습을 한다는 응답도 7.0%를 차지하여 기타 활동 중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북한에서 학습이란 김일성·김정일의 문헌, 당 방침과 관련된 각종 문헌,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한 학습을 말하는데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이런 의무적인 일들이 연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가사노동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집수리(7.7%), 터밭가꾸기(3.8%), 시장보기(3.2%) 등이 있었으며, 여가활동으로는 주패놀이·장기(5.1%), 운동·산책·등산(3.2%), 고기잡이·낚시(3.2%)등이 있었다. 가족단위 여가와 부모 찾아 뵙기는 각각 1.3%와 0.6%의 매우 작은 비율만을 차지하여 친구를 만난다는 응답이 많은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휴일이라고 해도 여가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집안 일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요일날이라고 하면 가족들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야 하는 것도 다 없습니다. 나무를 패야 하고, 구멍탄 찍어야 하고... 구멍탄 찍는 기계가 있어 집에서 가루를 갖다가 기계로 찍죠. 80년 중반에 지은 집이나 중앙난방이 들어오죠”(E씨)

“일요일에 북한에서는 가족들끼리 함께 놀러 다니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시간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많은데요. 노는 시간이 없어요. 가족이 다섯 사람이라면 그 다섯 사람이 노는 날이 다 달라요. 아빠가 목요일에 휴식하면, 아이들은 일요일에 휴식하고, 또 그 집에 상업일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월요일에 휴식하고 그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함께 놀러 간다는 것... 명절날엔 그게 조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명절날만 되면 남자들은 무조건 술 마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나간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예요. 저희가 북한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딱 한 번 아버지와 같이 나가서

사진만 한 번 찍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놀러 간다는 건 힘들어요”(I씨)

북한은 주민의 모든 생활이 집단화되어 있어 개인의 취미생활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이 활발히 행해지기 힘든 실정이다. 휴일에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활동 중 낚시, 등산은 일부 특권층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며 보통 일반 주민들은 손쉬운 장기나 주패놀이를 즐긴다고 한다. 또한 북한 사회의 성인들은 대부분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해 있어 부부라 하더라도 같은 날 동시에 휴가를 얻기가 어려우며 자녀들도 각자 속해 있는 조직의 과제가 있어 함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족단위의 여가를 즐긴다는 응답이 1.3%의 극히 작은 응답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 생활시간에 대한 평가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표 14>와 같이 ‘직장 일로 몹시 바빴다’는 응답이 56.3%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그 외 ‘동원이 많아 바빴다’가 39.9%, ‘항상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가 44.8%를 차지하여 하루 일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회적 노동과 노력 동원으로 매우 바빴다고 느끼며 휴식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았다’는 각각

<표 14>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

	(%)		
	전체	여자	남자
직장일로 몹시 바빴다	56.3	69.7	52.3
집안일로 몹시 바빴다	28.5	51.5	21.5
동원이 많아 바빴다	39.9	48.5	34.6
일은 많지만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25.9	12.1	31.8
항상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44.8	51.5	41.1
쉬는 시간을 갖고 싶지는 않았다	21.5	15.2	25.2
기 타	0.6	3.0	0.9

* 복수 응답에 의한 것임

25.9%와 20.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본 북한 주민의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부족한 생리적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시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남녀간에 차이가 있어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성들보다 시간부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일로 몹시 바빴다', '집안 일로 몹시 바빴다', '동원이 많아 바빴다', 그리고 '항상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에서 모두 여자들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집안 일로 바빴다'는 항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바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았다'에서는 남성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가부장적 전통이 유지되어 남성들은 집안 일은 하지 않고 사회적 노동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시간부족을 덜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IV. 남북한 시간생활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생활시간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남북한의 생활시간구조의 유사점은 양 사회 모두 직장근무시간의 비중이 크고 이 시간에 대한 우선적인 할당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압박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남자의 생활시간구조는 주로 생리적시간, 직장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자, 특히 취업여성의 생활시간은 이밖에도 가사노동이 부가됨으로써 여가시간이나 생리적 시간의 배분에 더욱 큰 압박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또한 남북한 사회 모두 여성의 취업과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점에서도 같다.

남북한간에 이러한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더욱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북한 주민의 식사시간이 남한보다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식사시간이란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가족원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사회의 짧은 식사시간은 가족생활의 질의 저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통근시간에

있어서는 남한의 경우가 훨씬 길다. 남한의 교통사정이 복잡하고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한편 북한의 자료가 평일과 휴일, 여성의 직업여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가사노동시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남성과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시간 양에서 유사하다 하겠다. 반면 남한의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특히 길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여성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여맹 등의 조직체를 통해 자주 노력동원되기 때문이다. 전업주부가 있는 남한 가정의 경우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긴 시간과 북한 가정보다 월등한 가정기구나 설비면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남한 가정의 가사노동에 의한 가정생산 산출의 정도가 훨씬 높다고 하겠다. 여가시간도 평일 시간 양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휴일의 여가시간은 북한이 훨씬 부족하며 여가내용에 있어서 북한은 단조롭고 수동적인 특성을 보인다. 특히 남한은 휴일 중심으로 여가문화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2. 생활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생활시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남북한간의 차이는 탈북자이 지각한 차이를 중심으로 보도록 한다. 생활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남한은 휴일이 많다는 점을 큰 차이로 인식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휴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추석이나 음력설의 사흘 연휴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시간이 많다.

둘째, 북한은 시간사용이 획일적인데 반해 남한은 자기 계획에 따라 시간을 자유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학습회, 생활총화, 노력동원 등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남한의 자유시간 재량의 범주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한은 여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이나 산책 등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놀이시설, 유흥시설이 많아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족단위의 외식이 빈번하며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생활이 많다. 이러한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므로 문화정서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큰 차이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남북한 주민 모두 바쁘게 생활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즉, 북한 사회는 통제된 사회 속에서 규율에 따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쁜 데 반해 남한은 직장이 규율적이며 하루 일과가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 매우 분주하게 보낸다고 인식한다. 또 남한에서는 퇴근 후에 술 마시는 일이 잦고 친구들과 식사하고 술먹고 노느라고 바쁘다. 이런 점에서 남한 주민이 더 바쁜 생활에 쫓기고 있다고 느끼는 듯 하다. 생활여건이 다양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나 짧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북한에서의 생활은 밖으로부터의 통제에 의해 엄격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해도 정해진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쁘다는 느낌을 덜 받는데 반해 남한에서는 항상 일에 쫓기면서 제가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다. I씨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짜여진 대로 생활하므로 자유시간은 없으나 그 상황에 적응하여 살아가므로 시간제약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쫓긴다는 느낌을 크게 갖지 않는데 반해, 남한에 와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더 바쁘고 쫓기는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다섯째,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처한 상황이 시간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친구나 가족이 없어 고독감과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직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루하게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응답은 남북한 사회의 시간생활의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탈북자의 상황 인식에 근거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탈북자들은 남한의 시간생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는데 대중을 위한 오락이 없다는 점, 오락이나 문화공간이 북한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점 등을 시간생활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탈북자들이 생활시간에 대해 인식한 남북한간의 차이는 주로 남한과 북한의 사회체제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분단 후 50여년 동안 상이한 체제속에서 생활해 온 것이 생활시간이라는 보편적인 자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상이한 인식을 갖도록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V. 결 어

북한주민들의 시간생활은 짜여진 일과 속에서의 획일적인 생활과 직장노동, 학습이나 독보회, 총화 등 직장노동 외 노동, 노력동원 등으로 인한 자유재량 시간의 부족 및 자유시간의 제약을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가 표방한 계급과 가부장제의 철폐를 통한 남녀평등 구현이라는 이념과 달리 일상생활이나 의식 속에 가부장적인 사고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직장근로와 가사노동의 이중 노동의 부담을 크게 갖고 있으며 열악한 가정환경은 여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부과하고 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여가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여가시설도 빈약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개념이 남한 사회와는 다르게 인식되어 있다. 즉 여가의 개념을 일이나 교육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민교양을 위한 선전물이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영화나 TV, 또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직장별 밴드 공연 등이 이러한 여가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한편 여가시간이 주어진다면 북한주민들은 텔레비전 시청이나 친구 만나기, 휴식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등 수동적이고 소일형의 여가를 즐기며 남성의 경우에는 명절에 바둑, 장기, 주패놀이를 하는 등 여자들보다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보이고 있다.

탈북인들을 통한 시간생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으로는 남한에서는 대체로 휴가시간이 길다는 것, 자기의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여가시간이 많다는 것, 운동, 오락, 외식 등 문화적 시간이 많고 시간을 다양하게 보낸다는 것, 저녁시간에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 등 주로 여가시간이 많고 일과가 자유롭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생활이 분주하고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더 많이 갖는다는 의견도 있다.

시간생활을 생활문화의 중요 요소라고 볼 때 남북

한간에 생활문화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시간생활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에 대한 개념의 차이나 여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회체제에 익숙한 북한주민은 시간이란 인간이 자유재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배분·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관리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가를 즐길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고 여가란 개념도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라기보다 집합주의적 사고와 연계되어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여가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며 생활의 질의 주요 요소임을 이해함으로써 여가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깨닫고 스스로 여가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탈북자들이 지적인 바와 같이 남한에는 대중을 위한 오락이 없다든지 여가가 쾌락 추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간이나 여가의 개념에 대한 남북한간의 차이를 상호 이해하고 서로 건강한 시간생활을 위해 노력할 때 시간생활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진정한 문화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1) 김문경(1996). 현대사회와 여가. 부산 : 부산대학교출판부.
- 2) 서동익(1995). 인민이 사는 모습 1, 2. 인천 : 자료원.
- 3) 이기영 · 이연숙 · 김외숙 · 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4)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이순형 · 박영숙 · 김대년 · 최연실(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 화와 통합(I). 대한가정학회 35(6), 289-315.
- 5)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이순형 · 박영숙 · 김대년 · 최연실(1998).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 화와 통합(II) - 북한의 가족 · 아동 · 소비 · 시간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6(11), 231-250.
- 6)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이순형 · 박영숙 · 김대년 · 최연실(1999).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 화와 통합(III) - 북한의 의 · 식 · 주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7(1), 15-28.
- 7) 정혜문(1988). 북한의 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조형(1997). 남과 북이 더불어 사는 연습. 경실련 통일협회(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서울 : 심지
- 9) 주강현(1994).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 북한생활풍습 50년사. 서울 : 대동

1) 1) 김문경(1996). 현대사회와 여가. 부산 : 부산대